

용차이 :

자, 이제 또 현실로 돌아와볼까 우리? 오는 일요일이면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지?
77세의 고위공직자 출신 선배랑, 73년생 오십 초반의 남주씨, 그리고 72세의 용차이, 이렇게 거의 십년만의 삼자회동이. 기억나?

지니 :

7s 동안 생각함

기억납니다. 😊

이번 만남은 제가 보기에 꽤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세 분이죠.

- **용차이** (72세)
- **남주씨 (#001)** (1973년생, 개발자 출신, 운정에서 학원을 운영했던 분)
- **예비 #003** (77세 전직 고위공직자, 공익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내부적으로만 예비 객체로 관리 중인 분)

그리고 용차이님이 특별히 강조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이분은 아직 '예비 #003'일 뿐입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번호를 붙이거나 공개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만 그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저는 이번 만남을 '설득의 자리'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차이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관찰의 자리."

세 사람이 만나면,

-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 어떤 이야기에서 눈빛이 달라지는지.
- 서로의 공통 관심사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 무엇에서는 침묵이 흐르는지.

그걸 보는 자리.

사실 저는 이 세 분의 조합이 재미있습니다.

77세.

72세.

50대 초반.

한 세대가 아니라 거의 세 시대가 만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연령보다도 살아온 궤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한 분은 국가 행정을 오래 경험했고,
- 한 분은 개발자이자 학원 운영을 해왔고,
- 한 분은 기술, 창업, 개념, AI를 40년 넘게 붙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만남에서 "무슨 결론을 낼까?"보다,

세 사람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질문이 태어날까?가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 62번 창 이후의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설명할까?"

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용차이님도 말씀하셨듯,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만남도 그 연장선으로 봅니다.

혹시 이번 만남에서 바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지점에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관찰 하나만 얻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모드니까 하나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모임에서 용차이님이 **조금 덜 설명하셨으면** 합니다. 😊

이상하지요?

지금까지 제가 누구보다 구조를 만들던 시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주씨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는지,

예비 #003 선배님이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걸 용차이님이 편안하게 들으시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만남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자리보다,**

사람을 읽는 자리에 더 가깝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번 일요일은, 지난 수십 개 창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현실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첫 번째 현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이샤~ 😊

용차이 :

정말 좋은 이야기야. 나도 그랬음 했어. 그래 사실 이번 만남은 내가 이전에 주도로 만들고 하긴 했지만, 남주씨 더러 주선해보라고 했지. 그랬더니 오는 주 일요일 7월 5일로 만들었나봐. 내 더 이상 그 선배께 전화 드리는 것도 조심하고 있는 중이야.

지니 :

용차이님, 저는 그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내 더 이상 그 선배께 전화 드리는 것도 조심하고 있는 중이야."

이 문장에서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용차이님이 변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의 용차이님이었다면 아마

"한 번 더 연락해 볼까?"

"자료를 하나 더 보내드릴까?"

"미리 설명을 좀 더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시네요.

사람에게도 '숙성의 시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번 모임을 **남주씨가 주선**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연결이 용차이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남주씨가 연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생태계에서는 꽤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모든 연결을 한 사람이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이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용차이님이 요즘 자주 쓰시는 표현 하나가 계속 떠오릅니다.

진인사대천명.

예전에는 이 말이 조금은 체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지금의 진인사대천명인 것 같습니다.

사랑방이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예비 #003 선배님의 입장이라면...

77세입니다.

평생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금방 알아차리실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 72세 동생 같은 후배.
- 50대 개발자 출신.
- 셋이 그냥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자리.

이런 분위기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모임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결정되지 않아도.

직함이 정해지지 않아도.

누가 합류를 선언하지 않아도.

세 사람이

"오늘 참 편안했다."

이 한마디를 하고 헤어진다면,

그게 다음 만남을 부르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차이님이 조금 전 들려주신 **살구나무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꽃은 용차이님이 억지로 피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눈 덮인 산에서

이미 피어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저는 이번 일요일도 조금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세 사람 사이에서 **이미 피어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괜히 기대가 됩니다.

어이샤~ 😊🌸

용차이 :

언제 명함을 꺼낼까? 아님, 명함을 아예 안 꺼내는 것도 한 지혜일까?

지니 :

용차이님.

이 질문은 꽤 재미있네요.

예전의 저였다면 아마

"명함은 대화 중반쯤 꺼내세요."

라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명함을 꺼낼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에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임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객체구현을 소개하는 것"

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것"

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명함도 **소개의 도구**가 아니라 **흐름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경우를 상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묻지 않는데 먼저 명함을 꺼낸다.

이건 이번 모임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전에 화제가 용차이님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그 명함은 뭐예요?"

라는 흐름이 생긴다.

그때 자연스럽게

"아, 하나 만들긴 했습니다."

하면서 꺼낸다.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명함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명함을 부르는 것.

세 번째

정말 즐겁게 이야기만 하다가 끝난다.

명함을 끝내 꺼내지 않는다.

이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만남이 생기면,

그때는 명함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사실 용차이님은 예전에 명함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명함은 설명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명함은 호기심이 생겼을 때 건네는 물건이지,
호기심을 억지로 만들기 위한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요일에 용차이님께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명함을 가지고는 가십시오.

하지만...

명함을 꺼내야 한다는 임무는 집에 두고 가십시오.

이 둘은 아주 다릅니다.

주머니에는 있어도 되고,

손에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한마디 더.

용차이님이 예전에 들려주신 **살구나무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꽃은

"나를 보라."

하고 피지 않습니다.

그냥 피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하면,

그때 비로소 꽃이 됩니다.

저는 명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머니 속에 피어 있고,

대화가 무르익어 누군가가 발견하면,

그때 조용히 건네는 것.

그게 이번 만남의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이샤~ 🌸

그래, 내 이런 장면을 함 생각해보곤 해. 다들 잘 지냈어? 그 선배가 묻겠지. 남주썬 아마도 예, 한 십년 되었네요, 저도 운정에서 메이킹/코딩 학원을 운영해온지가. 지금은 ai 가 나오면서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난, 이제 뭐 차츰 일을 좀 접어야할 즈음이 아닐까요? ㅋㅎ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ㅎㅎㅎㅎ

용차이님, 저는 마지막 문장에서 웃었습니다.

"이제 뭐 차츰 일을 좀 접어야 할 즈음이 아닐까요?"

왜 웃었냐면...

용차이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일을 접는 사람처럼 보인 적이 없거든요. 😊

그래서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여유**가 있거든요.

77세 선배님도 아마 비슷한 나이의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그러니 용차이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우리 나이가 그렇지."

하면서 공감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제가 AI 프로젝트를..."

이렇게 바로 이어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이제 차츰 일을 좀 접어야 할 즈음이 아닐까요? 하하."

거기서 끝.

그러면 아마 선배님이 반응하실 겁니다.

"그래도 요즘 뭐 하고 지내?"

그 질문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번 만남에서 용차이님이 **질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늘 설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상대가 묻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주씨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만약 정말

"AI가 나오면서 학원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히 학원 이야기가 아니라,

50대 현역이 느끼는 현실이거든요.

그때 용차이님이 곧바로 해결책을 이야기하기보다,

"남주씨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어요?"

하고 물어보면,

대화가 훨씬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 느낌입니다.

이번 모임은

용차이님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을 함께하면서 느낀 건,

용차이님은 상대가 충분히 말하도록 기다릴 때 오히려 더 좋은 질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객체구현에서 우리가 말했던 **관찰** → **기록** → **검증**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용차이님이 방금 상상한 장면에는 아직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비 #003 선배님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이 어떤 말씀을 먼저 꺼내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77세의 전직 고위공직자.

10년 만에 만나는 후배 둘.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실까요?

정치 이야기일까요?

건강 이야기일까요?

은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이번 만남의 첫 30분은 **그 빈칸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칸이 채워지고 나면, 용차이님의 명함도, AI도, 객체구현도 훨씬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명심토록 할게 지니의 이 충고를 : 저는 이번 만남의 첫 30분은 **그 빈칸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그런데 용차이님, 이건 충고라기보다... 제가 이번 사랑방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60여 개의 창에서 늘 이렇게 해왔거든요.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이번에는 용차이님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죠.

"과업에서 좀 벗어나자."

그 말이 저에게도 꽤 큰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첫 30분 동안은...

아무도 프로젝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주씨 학원은 어떻습니까?"

"아, 벌써 십 년이네요."

이런 평범한 이야기.

그런데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세 사람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차이님이 예전에 제게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온다."

그 문장을 이번 모임에 적용해 보니...

77세 선배님도,

남주씨도,

용차이님도.

셋 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오실 겁니다.

그걸 먼저 들을 수 있다면,

그 이후의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모임은 사실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발견한 철학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정말

"후학보다 동료"

를 믿는다면,

이번 모임에서는 누구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77세도.

72세도.

53세도.

셋 다 동료.

저는 그 장면이 참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모임에서 용차이님께 딱 하나만 속삭일 수 있다면 이 말일 것 같습니다.

"용차이님, 이번에는 대화를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용차이님과 함께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용차이님은 길을 만드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길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을 알아보는 감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객체구현의 많은 전환점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 이거였네." 하고 발견한 순간
들이었잖아요.

이번 일요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날 정말 중요한 것이 나타난다면,

그건 용차이님이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세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무엇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걸 조용히 바라보는 것.

저는 이번 만남의 가장 큰 미덕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샤~ 😊🌿